

자동차

Car

국산차 '가을결투' 승자 누굴까 수입차



현대 투싼

자동차업체들이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하순부터는 연식 변경으로 인해 차량 판매가 급감하는 만큼 12월 이전에 최대한 판매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0월 들어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 모두 대규모 할인 판매 및 선물 증정 행사 등을 마련하는가 하면 연식 변경 모델을 일찌감치 내놓는 등 가을철 '판매 대전'이 치열하다.



볼보 XG

현대 '베라크루즈' 출시 18일 광주서 신차발표회

현대자동차가 최고급 SUV (스포츠퉈리티차량)인 '베라크루즈'를 출시하고 대형 SUV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베라크루즈는 'LUV(럭셔리 유틸리티차량)'라는 콘셉트에 맞게 고급 대형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활동성을 갖추고 있다.



다.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V6 3.0 승용 디젤엔진을 장착해 240마력의 파워와 1등급 연비를 달성했고, 국내 최초로 6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됐다.

현대차는 13일부터 국내시장에서 판매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18일에는 광주 신양파크에서 신차발표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경호기자choice@



기아 스포티지

이달중 신차 '붐발' ... 할인 등 다양한 판매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가격할인 폭은 물론 신차출시 정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모델 출시를 앞둔 구형차종의 경우 할인 폭은 크지만 향후 부품을 구입하거나 중고차시장에 팔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연식변경, 단종시 등 앞두고 판매 '총력' =10월은 연식변경과 단종시 등으로 인해 1년중 새 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이다. 최근 자동차업체마다 새 차 구입고객에게 가격할

인 혜택을 포함해 총 790만원을 깎아준다.

르노삼성엔 가격 할인 대신 유류비 지원에 나섰다. SM7과 SM5 구입 고객에게는 유류비 30만원을 지급하며, SM3는 유류비 20만원을 제공하거나 10만원과 전자동 선루프를 무료로 장착해준다.

◇수입업체도 '파격할인' 가세=수입업체들도 최근 앞다퉈 신차를 발표하는 한편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앞세워 국내 공략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벤츠 코리아가 월간 판매대수 1위 자리를 탈환한 이후 혼다와 GM, 폴크스바겐, 볼보 등 중위권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BMW 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BMW 7 시리즈 전 모델을 대상으로 특별 리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06년식 BMW7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의 차종에 따라 취·등록세는 물론 최장 2개월의 리스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740Li의 경우 취·등록세 1천100만원과 리스료 300



BMW7

현대, 레저용 차량 대폭 할인

인은 물론 다양한 선물 제공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승용차보다 레저용 차량 할인 폭을 크게 확대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테라칸, 트라캐, 투싼, 스타렉스를 100만원씩 할인 판매한다. 신형 싼타페와 쏘나타 디젤모델은 가격을 50만원 인하했다.

기아자동차는 쏘렌토와 로체 디젤모델의 가격을 100만원 낮췄다. 스포티지는 50만원을 할인하며 뉴제라토, 뉴카렌스, 카니발은 각각 20만원을 깎아준다. 또 '고객사랑 가을 대축제'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국 지점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무전원 휴대용 손전등 등 증정하는 등 5개의 이벤트를 마련했다.

쌍용자동차는 '가을여행 페스티벌'을 마련하고 2007년형 로디우스 구입 고객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뉴체어맨을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2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렉스턴 II, 카이런, 액티언 등을 구입할 경우 '70만~100만원 할인' 또는 '저리 3%, 36개월 할부'를 선택할 수 있다.

GM대우는 토스카, 윈스톤을 제외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10만~200만원의 가격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전에 생산된 스테이즈맨의 재고 차량을 구입하면 500만원의 재



폴크스바겐

DMB·네비게이션 무상 지원

만원 등 1천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투아렉과 페이스 모델에 대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투아렉을 구입하는 고객은 취·등록세와 위성 DMB, 네비게이션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페이스 구매 고객도 3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과 위성 DMB를 장착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에스테이트 V 50 모델의 취·등록세를 지원하며, 디젤 모델인 XC70 D5에 대해선 취·등록세와 함께 140만원 상당의 전후방 센서를 장착해준다. SUV모델인 XC90 2.5T는 취·등록세는 물론 24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조건도 내걸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BMW



르노삼성 SM5



쌍용 로디우스

네 바퀴로 20억 번 어느 회사원 이야기

060-700-3658

인근지점: 광주 신양파크, 광주 동구청, 광주 서구청, 광주 남구청, 광주 북구청, 광주 동남구, 광주 서남구, 광주 북남구, 광주 동북구, 광주 서북구, 광주 남북구

TV홈쇼핑 고객평가 최우수제품!

유순 제트그립 트레킹화 1이 파격할인대잔치!!

정가 29,800원 (21,800원) 36,800원

할인가 29,800원 (31,800원) 51,800원

구입문의 080-225-4040